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보 도 자 료

장벽없는 영화축제

제1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개최

오는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에서 개최
 개막작<눈이 보이지 않는 시라토리 씨, 예술을 보러 가다> 배리어프리버전
 국내 프리미어 상영
 배리어프리 장편, 배리어프리 인권영화 등 8개 부문 39편 무료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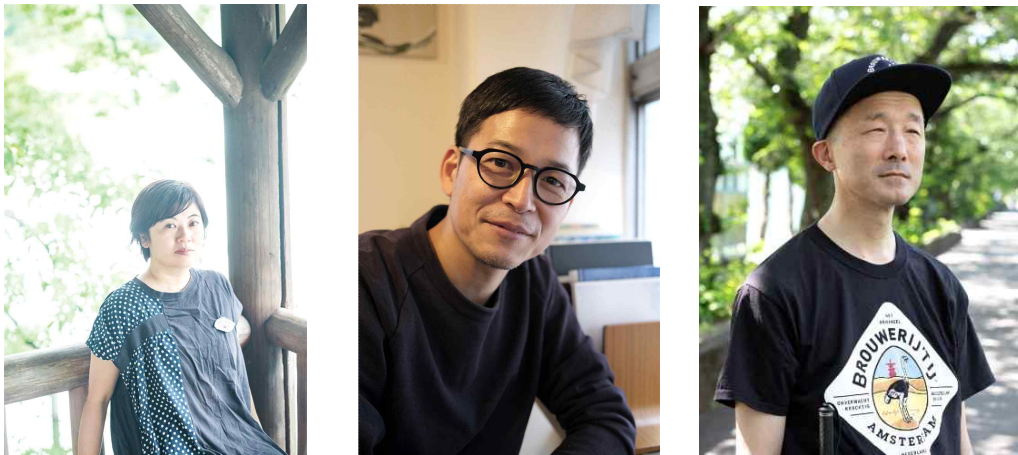


▲ 제1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공식 포스터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은 오는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네마테크KOFA(상암동 소재)에서 제 1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를 개최한다. 장벽없는 영화축제, 제1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는 한국영상자료원과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며, 서울특별시와 후원하는 국내 대표적인 배리어프리 문화 축제이다. 배리어프리영화는 시각·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영화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음성해설과 배리어프리자막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제작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8개 부문 39편의 배리어프리영화가 무료로 상영되며, 전주국제영화제 단편 수상작과 산학협력으로 제작된 단편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 개막작 <눈이 보이지 않는 시라토리 씨, 예술을 보러 가다> 스틸



▲ 개막작 <눈이 보이지 않는 시라토리 씨, 예술을 보러 가다>

카와우치 아리오 감독, 미요시 다이스케 감독, 출연자 시라토리 켄지

□ 개막작 및 주요 행사

개막작으로는 일본 다큐멘터리 영화 <눈이 보이지 않는 시라토리 씨, 예술을 보러 가다>(감독 카와우치 아리오, 미요시 다이스케, 출연 시라토리 켄지)가 배리어프리버전으로 제작되어 국내 프리미어로 상영된다.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자신만의 미술 감상법을 발전 시키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국내에도 최근 번역 출간 된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술을 보러 가다』의 저자인 카와우치 아리오 감독이 직접 연출한 작품이다. 제1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개막을 맞아 카와우치 아리오, 미요시 다이스케 감독, 출연자 시라토리 켄지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11월 12일(화) 열리는 배리어프리 포럼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개막식, 배리어프리 포럼뿐만 아니라 씨네토크를 통해 배리어프리버전을 직접 연출한 감독과 함께 배리어프리버전 연출 경험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자세한 정보는 영화제 공식 웹사이트(www.baf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https://www.koreafilm.or.kr/main>)를 통해 상영 5일 전부터 예매도 가능하다. 모든 상영작과 행사는 무료이다.

[참고자료①] 영화제 안내

제1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Seoul Barrier Free Film Festival 2024 (BAFF 2024)

- 일정: 2024년 11월 7일(목)~14일(목)
- 장소: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
- 상영작: 8개 부문 39편의 장, 단편 배리어프리영화
- 주최 및 주관: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 공동 주최: 한국영상자료원
- 후원: 서울특별시
- 관람료: 무료

홈페이지: www.baff.or.kr

카카오 같이가치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기부 응원하러 가기

장벽없는영화축제 '제14회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kakao.com)

[참고자료②] 포스터 해설영상

